구미 교사불자회 12일 창립

14개교 39명 동참…학교마다 불교반 개설 추진

매달 법회·사찰순례 통해 신심증장

교사들의 신심을 증진하고 청소년포교에 일익을 담당하게 될 지역교사불자회가 결성됐다.

경북 구미지역 교사들은 지난 12일 구미불교포교원에서 구미불교 교사불자회 창립법회를 개최하고 교사들의 신앙증진을 통한 청소년포교에 발벗고 나서기로 했다.

3개월전부터 구미사암연합회(회장 법등)와 함께 준비작업을 벌여온 구미불교 교사불자회(초대회장 김해룡 금오공고 학생과장)는 창립과 함께 구미지역 14개교 39명의 교사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구미불교교사불자회 창립법회가 지난 12일 구미불교포교원에서 1백여명의 사부대중들이 이 동참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구미교사불자회는 앞으로 1년간을 교사들의 불교교리 함양 준비기간으로 설정하고 분과별 교리연구와 교사간 친목도모, 불자학생 지도프로그램마련등 자체수련 및 교리발표에 중점을 두기로 했으며 매달 둘째주 목요일 법회를 개최하고 넷째주 목요일은 전통사찰 순례를 갖기로 했다. 이어 교사불자회는 2차사업으로 창립목표인 청소년 포교를 위해 구미시 중고교에 불교학생회를 창립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구미 교사불자회는 창립에 앞서 지난 6월30일 구미 사암련과 도리사에서 관내 중·고생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태조산 일대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자연보호 홍보활동을 벌여 지역교사 및 학생들의 관심을 집중시킨바 있다.

현재 구미지역에는 4개학교에 불교학생회가 조직돼 있으며 1차로 실업계 학교를 대상으로 불교반이나 문화재 연구반을 조직키로하고 10월중 해평상고에 불교반 창립을 준비중이다. 이와함께 경북지역 교사불자연합을 창립하자는 움직임도 폭넓게 일고 있다.

경북지역에는 상주불교 교사불자회가 활동중이며 구미불교 교사불자회와 합동법회 개최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내 창립을 서두르고 있는 김천불교교사불자회의 창립준비에도 서로 지원키로 해 인근지역단위의 불교교사불자회 창립이 이어질 전망이며 이러한 활동은 전국적인 불자교사연합 결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원우 기자

◇해인사 강원 학인 1백여명이 14일 대적광전에서 해인총림 수호를 위한 무기한 단식철야정진기도 입제식을 거행하고 주지실을 방문 요구사항 유인물을 부착했다.

慧庵 방장

전 대중 3천배 참회하라

해인사강원 폐강 실마리 못찾고 갈등

해인사 강원 폐강사태 해결을 위해 종회특위, 교육원, 승가대통문회가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으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채 갈등양상이 계속되고 있다.(19일 오후 6시 현재)

지난 11일 해인사 산중총회에서 강원을 폐강키로 결정하자, 해인강원 및 전국승가대소속 학인 1백여명은 14일 해인사에서 '골프장 전면백지화 원만성취 및 해인총림수호를 위한 무기한 단식철야정진기도 입제식'을 거행했다. 이날 학인들은 대적광전에서 해인강원 폐강조치 즉각 철회와 종무행정 담당자들의 사퇴를 주장하며 50여명이 무기한 단식정진에 들어갔다.

이어 17일 해인승가대 동문회 임원 및 중진스님들은 대구에서 해인사 사태를 논의하기위한 회의를 갖고 해인총림비상대책위 공동대표로 수진스님(前 해인강원 강주)과 보광스님(해인동문회장)을 추대했다. 이날 해인동문들은 △해인사 주지이하 7직 해임 △증앙종회 총림법 개정 △해인사 사중의 해인골프장 건설반대 입장천명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골프장 건설저지운동을 위해 동문회기금 1천만원을 해인골프장 저지 집행위원회에 기증키로 했다.

이에앞서 16일 해인사 주지 성법스님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해인사 사중은 가야골프장건설 반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종무소가 강원의 강주, 학감과 입승인 일경, 지산스님을 해임 퇴방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성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인사권자인 방장스님에 대한 항명이며 현체제에 대한 정면도전이다"고 밝혔다.

또한 해인사 가야총림 방장 혜암스님은 지난 17일 원로회의에서 "해인사문제는 학인주장만 듣지 말고 양측의 주장을 들어야 한다"며 해인사 사퇴에 대해 설명한데 이어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종무소 강원 선원스님들이 3천배 참회로 용서를 구하면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중앙종회 산하 해인사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법등)도 19일부터 해인사에서 조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교육원도 19일 교육원 산하 3개 위원회와 전국 승가대 교역자 2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강원 폐강 철회를 촉구키로 결의했다.

한편 여러 문도가 모여서 원융살림을 꾸려온 해인사의 실정에 비춰볼 때 이번 사태는 일과성이 아니라 뿌리깊은 문제가 곪아터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종무소와 학인스님들의 한치 양보도없는 팽팽한 주장에 비춰볼 때 타협은 물건너간 상태이다. 타협이 이뤄지지않을 경우 전국승가학인대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사태는 걷잡을수 없이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행자교육원의 조기 종료라는 초유의 사태를 야기시킨 이번 사태는 어느쪽으로 결말이 나든지 그 후유증이 오래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인사=이윤호 기자

종무소 '4인 퇴방 거부' 인사권 정면도전

학 인 집행부 독선 반발 7직 해임 요구

종회특위·교육원·동문 '타결방안' 모색

조계종 행정전산화 구축 '박차'

개발업체 선정…인터넷 웹서버도 준비

조계종 총무원은 최근 행정전산화를 위한 프로그램개발 업체를 선정하는등 중앙종무기관 종합전산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지난 1월 중앙종무기관 근거리통신망(LAN)을 구축한 총무원은 종무행정관련 프로그램 개발업체로 이현데이타 시스템을 선정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종합전산망을 본격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개발되는 종무행정 프로그램은 기획감사, 문화사회, 총무승적, 재무회계, 교육원, 포교원, 종합관리 등 7개 기관 20여개 프로그램으로 총무원의 모든 자료를 입력하고 분야별로 검색하는 기능을 갖추게 된다. 특히 2천여개의 사찰에결산은 물론 각종 통계, 승·재가관리 등을 일목정연하게 관리하게 된다. 총무원은 인터넷에 웹서버를 설치해 본말사와 연계하고 일부 자료는 일반에 공개할 계획이다.

종합전산망구축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실 유지호 과장은 "전산망이 본격 가동되면 종무행정업무의 원활함은 물론 정확한 기초자료확보와 분석으로 불교계 권익보호에 일조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총무원은 2억원여원의 예산으로 종무행정 프로그램을 추가비용없이 본말사에 제공할 예정이다. 〈엽〉

전국방송인불자연합회 김학선 회장

"방송분야에 종사하는 방송사간 직원 상호간에 친목도모와 유기적이고 조직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불교의 정확한 전달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사간 정기법회 정착 앞장

지난 14일 창립(본지 83호 보도)한 전국방송불자연합회 회장 김학선씨(KBS 불교연구회회장)의 말이다.

전국방송불자연합회는 지난 5월 첫 준비모임이후 KBS가 지방국을 포함 총361명의 회원을 확보했고 이어 MBC 불교연구회가 55명, SBS불교연구회가 30명의 회원을 주축으로 창립의 성과를 이뤘다. 창립준비과정에서 가장 선배격인 김회장이 지난 7월에 3사가 함께 조계종 총무부장 혜창스님을 모신 최초의 합동법회를 주선하는 등 물심양면으로 노력해왔다. 김회장은 "앞으로 방송사간의 정기법회 정착과 더불어 BBS btn등 불교계 언론기관과도 돈독한 우애를 쌓을 계획"이라면서 "회원들과 함께 불교공부도 더욱 체계적으로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국방송불자회의 단합된 힘을 불교문화진흥사업을 통해 펼쳐보일 생각입니다"라며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밝혔다. 〈은〉

대만 우란분절행사 '성대'

내년부터 국가차원

목련존자의 효행 함양과 세계불교의 교류를 위한 세계공불제승(世界供佛齊僧)대회가 지난 1일 대북의 임구중정(林口中正) 실내체육관에서 4천여스님 등 1만4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참가한 가운데 봉행됐다.

이 대회는 '대만미타세계(臺灣彌陀世界)'의 오공(悟空) 법사가 주최하고 대만불교협회가 지원했다.

〈우란분절경〉의 내용을 그대로 실현시킨 우란분절 행사로 사부대중의 관심을 환기시킨 이번 대회는 증명법사 정양장로(淨良長老)의 청정의식과 독경으로 시작했다. 이어서 목련존자를 기리기 위해 4천여명의 스님에게 공양을 올리는 의식을 진행하고 사회안정과 세계평화를 축원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 한국대표로 참가한 보성스님(송광사 율주)을 비롯 10여명의 스님들은 수계의식을 집행했다. 해를 거듭할수록 행사규모가 커지고 있어 내년부터는 국가차원에서 할 예정이다. 〈욱〉

올림픽불자스타

방송나들이 '바쁘다'

박장순씨 KmTV 고정출연 김영준씨 빠떼루 열풍

김경욱·조민선·전기영·심권호씨 등 '시청자들 기억'

◇김영준씨

◇박장순씨

96애틀랜타 올림픽이 배출한 또다른 불자스타들이 TV화면을 종횡무진 달리고 있다.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불자 레슬링스타 박장순선수가 이달초부터 음악 전문케이블TV KmTV(채널43)의 아침 생방송프로 '오! 해피데이'에 고정출연하고 있다.

박장순은 이 프로에서 가수의 ㅈ도로 노래를 부르다가 잘 안될 때면 어색한 미소와 어눌한 말투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해 주위를 웃음바다로 만든다.

또한 애틀랜타 올림픽때 레슬링경기 해설을 맡았던 '빠떼루 아저씨' 김영준씨도 KBS 2TV '웃음천국' 코메디 프로그램에 고정출연하며 일반인들에게까지 인기 절정을 달리고 있다. 이 프로에서 김씨는 레슬링 교실을 통해 고유의 "빠떼루 받아야 한다"를 대사로 사용하며 레슬링경기 벌칙중의 하나인 빠떼루 시범을 개그맨들과 직접 보여 빠떼루 열풍을 안방 시청자들에게 까지 코믹하게 전달하고 있다.

이밖에도 애틀랜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김경욱, 조민선, 전기영, 심권호선수 등도 MBC '일요일일요일 밤에' 한판승부 코너와, KBS '체험 삶의 현장'에 출연하는 등 올림픽의 열기가 시청자들의 관심속에 안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은〉

목탄소리

불교계 문화현실

이 은 자 〈취재2부 기자〉

불교문화대제전이 40여만명(주최측 집계)이 다녀간 가운데 지난 14일 막을 내렸다.

단일 행사규모로는 최대규모로 치뤄진 이번 문화대제전은 그러나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속담을 다시한번 실감나게 했다. 크게 얻은 것 없이 뒷소리만 남기고 막을 내린 이번 행사가 불교의 이미지 제고에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지 되새겨 보자는 것이 행사를 지켜본 대중들의 생각이다.

전체 전시규모보다 더 큰 생활관의 시장바닥같은 난잡함, 진행미숙으로 인한 어수선한 행사장 분위기, 그리고 기대에 못미치는 관람객유치로 발생한 임대부스 상인들의 집단 항의등은 이번 행사를 한국불교문화발전에 기여하는 정기 문화행사로 자리매김 하겠다던 주최측에 많은 과제를 남겼다.

또한 불자들에게는 불교문화행사를 불사차원으로 함께 일구고자 하는 동참의식의 척박함과 낙후성을 다시 확인케 했다. 특히 생활관 일부에서 발생한 상인들의 집단항의사건에 대해 불교TV는 경성기획을 공동사업자로 선정한 이상 도의적차원에서 일정부분 관리·점검의 책임을 회피할 수 만은 없다고 본다.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찾지 못한채 일부 상인들이 이탈하고 부스에 갖은 욕설로 도배를 함으로써 행사장을 찾아온 불자와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갖게 한 사실 하나로도 이번 행사는 본래의 기획의도를 퇴색시키기에 충분했다.

불교계에도 대형의 다양한 문화불사들이 늘고있다. 이번 불교문화대제전 또한 그러한 측면에서 불교역사의 뿌리를 함께 공감하는 소중한 문화불사의 현장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문화는 생활 속에서 실현될 때 비로소 공감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이번 행사는 동참자들에게도 함께 일구는 동사섭 정신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는 반드시 짚어야할 불교계 현실이다.

관절염, 류마티스

CELL-GUARD(셀가드)

관절염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은 있다.

- 노령에 의한 관절염
- 신경정신 상태로 인한 관절염
- 체중이 무거워서 발생되는 관절염
- 유전적인 원인으로 발생되는 관절염
- 퇴행성 골 관절염
- 류마티스성 관절염
- 통풍성 관절염

등에 대한 효능실험에서 멕시코 국립대학 임상연구결과 80명을 상대로 98% 이상의 완화(시카고 트리번지) 등에서 관절염, 관절통(통풍)등 기타 염증으로 인한 통증 및 부종과 유리기에 의한 신체조직의 파괴 및 관절염 노화 면역기능 악화에 탁월함을 역설하고 있다.

특수영양식품
국립보건원
자가기준 및 규격
제 893-606호

"미국수입완제품"

하루 딱 한번만 복용!!

2달분(정제형)₩270,000
은행카드 소지자 3~12개월 분할 혜택

사례문

김진길(56세) 세계참피온 류명우 스승

상기 본인은 셀가드가 관절염·류마티스·통풍에 좋다는 소식을 세계참피온 지도자 조회동(前 세계참피온 박종팔의 스승)씨 등 많은 권투인들로부터 전해 듣고 관절염과 통풍으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좋은 약은 다 먹어 보았지만 효과를 보지 못해서 2달分을 구입하여 복용을 하기 시작하자 1달 후부터 조금씩 달라지더군요.
그래서 꾸준히 복용하여 6개월이 지나자 완쾌 되었습니다. 지금은 몸이 완전히 나아져 저 처럼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하여 이 제품을 소개하여 드립니다.

삼 일 양 행

서울 : (代) 790-8200 (휴일도 근무함)
본사 :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108번지

지방에서 주문시 온라인 주문방법
예금주 : (주)한국복지공사
농 협 : 094-01-146584
우체국 : 010025-0126305-11
입금후 주소는 전화로 알려주세요(등기,소포우송)

사진으로 보는 법보시용 경전

칼라판

쉽고 재미있는 생활불교 1
석가모니불 500대원

쉽고 재미있는 생활불교 2
지장경

쉽고 재미있는 생활불교 3
장수멸죄경

어떤 중생이 죄 중에서 가장 무거운 오역죄를 범하였어도,
이 경을 자신이 쓰고, 읽고, 외우고, 지니거나, 남을 시켜 쓰게만 하여도,
그 죄업에서 벗어나 천상에 태어날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이 살아서 선업을 맺지 못하고 악업만 잔뜩 지었다 해도,
명을 마친 뒤에 가족들이 그를 위하여 이 경으로 복을 닦으면, 업장이 소멸되어
죽은 뒤에 바로 인간세상이나 천상에 태어나 즐거움을 누릴 것이다.

학림 엮음/신국판 칼라화보/값 각권4500원

법보시용으로 좋습니다

운주사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전화:720-9372~3 팩스:723-0646